



해외양돈뉴스



※미 국

에탄올 수요 · 생산 증가 지속

미국의 에탄올 수요와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재생연료협회는 지난 5월 미국의 에탄올 수요량이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5억6천260만 갤런으로, 이를 1일 수요량으로 계산하면 약 42만7천 배럴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한 달간 에탄올 생산량도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5억2천810만 갤런으로 하루에 약 40만6천 배럴이 생산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124개 대규모 에탄올 정제공장에서 연간 약 64억 갤런 이상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75개 에탄올 정제공장이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돼지고기 수출 감소세

7월말 70만4천톤 전년비 5% 감소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7월 돼지고기 수출량은 9만여톤으로 전달 9만8천톤에 비해 8%, 지난해 동월 9만2천톤 대비 2.2%가 각각 줄었다.

이는 '05년 9월 이후 월별 수출량으로는 가장 적은 양이다. 이로써 7월까지 돼지고기 수출은 70만4천톤을 기록, 일년전 74만여톤보다 5% 감소했다. 반면 수출금액은 17억달러로 06년 같은 기간 16억달러에 비해 6.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말 국가별 수출량은 일본이 20만9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멕시코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29% 가량 감소한 15만4천톤을 기록했다. 이 밖에 캐나다 7만7천톤, 한국 5만8천톤, 유럽연합 1만330톤을 각각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돼지 사육두수 증가세

미국과 일본의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9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6천460만두로 전분기 6천280만두 대비 2.8%, 전년동기 6천270만두 대비 3% 증가했다.

모든 또한 614만두로 전년동기대비 1% 증가했으며, 비육돈은 5천850만두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3% 증가했다.

일본 또한 농림수산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976만두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양돈농가 수는 7천550호로 감소, 1가구당 사육두수는 1천293두로 증가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7월 기준 1천469만두로 이 가운데 모돈은 157만두 등으로 집계됐다.

※일 본

돈육 수입량 감소

상반기 미국 · 캐나다산 최대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 돼지고기 수입 통관량은 6만97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7.4%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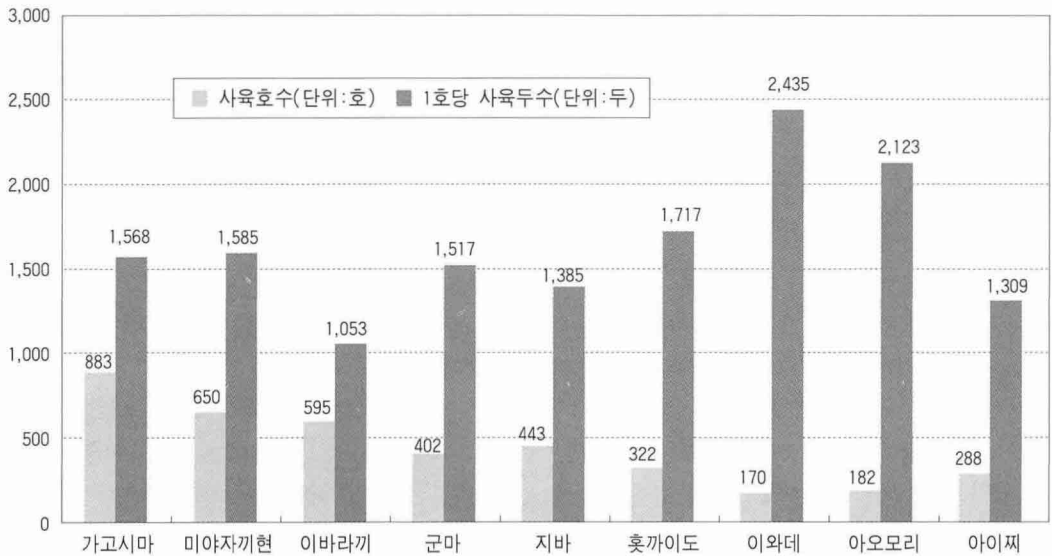
이 가운데 냉장이 1만8천785톤으로 0.6% 감소하고, 냉동은 4만2천185톤으로 10.1% 큰 폭 감소했다.

한편 상반기(1~6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38만1천281톤으로 미국 13만7천55톤, 캐나다 8만5천360톤, 덴마크 7만9천527톤, 멕시코 2만2천808톤 등이 수입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



| 일본의 양돈산업 현황 |

2007년 8월 1일 현재



• 전국 사육두수 9,759천두 • 사육호수 7,550호 • 1호당사육두수 1,292.6두

듀록 신계통豚 농가 보급 분만두수 10.9마리로 우수

일본이 번식성적과 돈육 품질이 우수한 새로운 듀록종을 내년부터 양돈농가에 보급한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부는 듀록종의 신계통돼지인 '아이리스나가라'의 조성을 완료해 양돈협회로부터 인정받았으며 '08년 2월부터 양돈농가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아이치현 농업종합시험장과 기후현 축산연구소가 공동으로 계통조성에 착수한 '아이리스나가라'는 발육성과 산육성이 우수하며 시식회 결과 고기품질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존 듀록종의 '사쿠라201'과 번식성적을 비교한 결과 분만·이유두수가 10.9마리, 8.8마리로 각각 2.7마리, 2.3마리 많고 1일 평균 증체량도 1천24g으로

28% 향상돼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중 국

돼지 값 안정세

폭등세를 보이던 중국의 돼지 값이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농무부는 8월까지 계속 오르던 돼지고기 가격이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에 8월초 kg당 21위안을 형성하던 돼지고기 가격은 13~20위안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돼지고기 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출하량과 재고량 증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무부는

돼지고기 재고와 출하가능 돼지두수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4%, 9.9% 늘었다고 밝혔다.

✧ 필리핀

돈육 생산, 소비량 모두 증가세

필리핀의 돈육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94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생산량은 올해 124만5천톤으로 지난해 121만5천톤에 비해 2.4%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생산량보다 3만여톤 가량 많은 127만2천톤으로 06년 124만톤 대비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입량은 2만7천여톤으로 지난해 2만5천톤와 대비했을 경우 8%가량 많아 05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구제역에 이어 청설병 비상

영국 축산농가가 구제역에 이어 이번에는 청설병(靑舌病)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업부는 지난 9월 잉글랜드 남동부 서퍽주(州) 로스토프트 인근 지역에서 세 번째로 청설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앞서 서퍽주 입스위치 인근 베일럼의 한 농장에서 청설병에 걸린 소가 잇따라 발견돼 살처분됐다. 영국에서 청설병이 보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세계

돈육 유라시아 확산 중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있는 카프카스 지역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그루지야의 경우 65개 지역 중 52개 지역 돼지들이 전염, 6만8천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인접국인 아르메니아의 북부지역 및 예레반 교외로 까지 퍼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 지역은 북으로는 유럽을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두고 있어 FAO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인접국으로 돼지콜레라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옥수수·대두박 폭등세 유지
생산량 재고량 증가에도 사상최고가 기록

최근 미국 농무성은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사료곡물 = 세계 생산량은 10억6천176만톤, 미국 생산량은 3억5천170만톤으로 전월 예상치보다 각각 0.2%, 0.3% 증가했다. 세계 재고량은 1억3천224만톤으로 한달전보다 1.1%, 미국도 4천652만톤으로 8월에 견줘 9.4% 늘었다.

▲옥수수 = 세계 생산량은 7억7천410만톤, 미국은 3억3천804만톤으로 한 달 전에 비해 각각 0.3%, 1.9%가 증가했다. 세계 재고량은 1억544만톤으로 전월 예상치보다 3.1% 많았으며 미국은 4천255만톤으로 8월 2천533만톤으로 전월 대비 10.5% 늘었다.

▲대두박 = 세계 생산량은 1억6천30만톤으로 전달 대비 0.3%, 미국은 3천936만톤으로 한달전에 비해 1.3% 많아졌다. 재고량은 570만톤으로 전망돼 8월보다 5.9% 증가한 가운데 미국은 27만톤으로 변동이 없었다.

▲원료가격 = 9월 중순 현재 사료곡물 시세는 C&F(운임을 포함한 가격)기준 미국 톤당 옥수수의 경우 258.5달러로 전월 평균 242달러에 비해 16.5달러(6.8%)가 오르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두박도 402.4달러로 지난달 352달러에 견줘 50.4달러(14.3%) 올랐다. **양봉**